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아 보험시장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국가 구성/동남아 보험 시장 분석 및 전망/당 팀의 동남아 계약현황 및 실적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기에 앞서 동남아 시장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다음 3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의 잠재력**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동일 인종에서 기인하는 **다방면에서의 우수한 접근성**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험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아직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시장.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기회의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생각처럼 유망한 지역인지 알아보고 싶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당 팀의 계약과 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은 싱가포르의 2개 특약입니다.

최근 ‘22년7월 이후에 계약 인수를 검토한 국가는 다음과 같고, 싱가포르 특약 3건 갱신했습니다.

이외는 수익성 부족 / 고령자 계약 등의 이유로 인수 거절 하였습니다.

당 팀의 계약 현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은 동남아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총 11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국가를 기준으로 아세안5와 아세안10으로 그룹화 되기도 하는데,

아세안 5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으로 구성됩니다.

싱가포르는 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이미 성장되어 있고, 경제적 특성과 발전 단계에서 아세안5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동남아는 평균 5시간45분 거리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아 시장 분석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주요 국가의 인당 GDP 순위이며, 싱가포르가 1등, 브루나이가 2등, 말레이시아가 3등입니다. 여기서 브루나이라는 생소한 국가가 나오는데, 브루나이 국가에 대해 영상으로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해당 국가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석유로 유명한 부유국이라고 하며 복지 혜택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남아 국가의 인구 정보입니다. 표에 정보가 많으니 천천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고 유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곳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입니다.

다만 해당 국가들의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망담보 재보험 수재 시 계약자 연령 분포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 수명 등을 기반으로 한 인간 개발지수도 참고할 만한 지표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지표는 인터넷 사용률입니다.

보험사의 데이터 처리 능력은 사별로 상이 하겠지만, 국가의 인터넷 사용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가 사용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동남아 주요 국가의 부패 인식 지수 비교입니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가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이었습니다.

국가의 부패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재보험 거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국가 의료체계의 부패는 보험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재보험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3년도에 베트남 현지인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환자가 많은 병원을 가고 케어를 잘 받고 싶으면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돈부터 줘야 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신경도 안 쓴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의 부패지수도 참고해야 할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남아 국가의 보험 침투율입니다.

원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침투율이 낮은 국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이 일정 수준 이상 보급된 국가가 더 유망한 시장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보험 침투율이 높았고, 싱가포르는 대한민국 보다 생명보험의 침투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의료/보건 서비스 지수 비교입니다.

좌측은 CEO world magazine에서 조사하는 의료 서비스 지수이고, 보건의료 인프라/보건의료비용/보건의료 관련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quality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우측은 WHO에서 조사하는 보건 서비스 지수이고, 의료 접근성/환자만족도/대기시간/의료시스템 효율성을 기반으로 평가한 지수입니다.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료/보건 서비스 지수를 통해 해당 국가의 의료 인프라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지표들을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위 50% 순위에 속하는 경우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다방면의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의 보험관련 현황에 대해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생보사, 재보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생명보험이 시장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판매채널은 에이전트/방카/파이낸셜 어드바이저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가입한 상품으로는 투자 비연계형 일시납 보험이 41% 정도이고, 양로/종신 보험이 비슷한 비중입니다.